



과천시의회소식

제 38 호 | 2012년 8월 17일 www.gccouncil.go.kr

발행인 : 황순식 | 편집인 : 홍대현 | 발행처 : 과천시의회사무과 | 과천시의회 (전화 : 02-3677-2521 / FAX : 02-3677-2538)

제 182 회

과천시의회 1차 정례회

- 기 간 : 2012. 7. 9 ~ 7. 24 (16일간)
- 주요안건 : •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심사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천시의회(의장 황순식)는 7월9일부터 7월24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18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흥천)를 구성하여 7월 9일부터 7월13일 까지 5일간 운영하면서 시로부터 제출된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건은 가결을 보류하였다.

7월16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흥천 의원의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

리지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시정질문과 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7월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수) 에서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년간의 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14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하였다.

제4차 본회의(7월24일)에서는 박정원 의원의 “일자리 만들기과 직장보육시설 에 대하여” 시정질문과 시장의 답변을 듣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 하였다.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제6대 과천시의회 전반기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서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인국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6대 과천시의회 후반기 짧은 의장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을 섬기고 의원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의사일정을 이끌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과천시의회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소통하는 의회입니다. 먼저

의원들 사이에 그리고 의회와 시민 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 간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의견이 집행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 잘하는 의회입니다. 저는 지난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업무라는 것이 그 양과 관계 없이 워낙 다종다양하여 하나하나 깊이있게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장으로서 의회 직원들과 함께 의원들이 더욱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힘 있고 신뢰받는 의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권력배분이 균형 있게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회에서 이야기된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음을 경험했습니다. 충분한 소통능력과 실력에 기반하여 시민과 의회의 생각이 실제로 집행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신뢰받는 의

회 그리고 과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분들을 만나고 시민들께 사랑받는 과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과천시의회 의장 황순식

첫째, 소통하는 의회
둘째, 일잘하는 의회
셋째, 힘 있고 신뢰받는 의회

오늘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는 제6대 과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부터 24일

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8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의 안전심의와 함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실시됩니다. 특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집행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시 정책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심사 자료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결산승인의 건도 심도있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의회 의장 황순식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 기 간 : 2012. 7. 9 ~ 7. 13 (5일간)
- 위 원 장 : 이홍천 • 간 사 : 하영주
- 위 원 : 안중현, 이경수, 서형원, 박정원



의결사항

원안가결 : 3 수정가결 : 1 보류 : 2

연번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1	2012-32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	2012-33	과천시 장애인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	2012-34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가결

연번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4	2012-35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
5	2012-36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류
6	2012-37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기 간 : 2012. 7. 16 ~ 7. 24 (9일간)
- 위 원 장 : 이경수 • 간 사 : 이홍천
- 위 원 : 안중현, 하영주, 서형원, 박정원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총114건)

I 기획감사실 (7건)

- 예산서 작성시 위탁업체가 확정된 예산은 위탁업체를 부기에 표기하고, 예산 집행시 지출부에는 채주를 명확히 기재하여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람 (실과소동 공통사항)
-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관련,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자부담과 보조금에 대한 통장관리를 별도로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람, 보조금 지원사업은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집행되어야 하며, 유사사업비로 집행이 변질되지 않도록 엄격히 적용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정산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민간이전경비 사업평가시에는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3년이 상된 일몰제 대상사업 추진관련, 일몰제 미적용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예산심의전 제출하기 바람.
- 과천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도 등과 협조하여 과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바람.
- 지역갈등해소를 위해 시정홍보에 대한 보도자료는 모든 신문에 평등하게 배포하기 바람.
- 기획감사실 뿐 아니라, 각 실과소동 공히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 비율을 35%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실적을 보고하기 바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운영활성화에 노력하기 바람. 특히, 다음연도 행감자료 작성시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기 바람. (의회법무팀, 실과소동 공통사항)
- 시 홈페이지 각 부서별 자료를 최근자료로 업데이트 하기 바람.(공통)

I 주민생활지원실 (3건)

- 1)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관련, 사회적기업 공모시 공고기간 부족, 심사소홀, 전년도 사업평가 불충분, 회의록 작성보관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바라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
- 2) 예비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 대한 컨설팅을 친절하고 철저하게 하기 바람.
- 3)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열악한 주거환경의 비닐하우스 마을 등의 식수문제는 주민 최소생활 보장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총괄하여 관련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시민불편사항이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기 바람.

I 총무과 (4건)

- 1)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관심 있는 다양한 시민들이 많이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 안내에 더욱 더 노력하기 바람.
- 2) 직원들이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 3) 공무원 사기진작 관련, 인사적체가 과천시 현안문제이긴 하나 차선책으로 직원개인의 능력개발 지원을 통한 전문가 양성에 노력하기 바람.
- 4) 각 동 사회복지 공무원 1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리,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방문상담 및 업무처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내근과 외근을 교대로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2명씩 배치할 것을 제안함. 신규채용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처리지침과 매뉴얼을 숙지할 기간을 두고, 사회복지업무 상담 및 처리에 있어 감성적·심리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후생복지차원에서 정기적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주민생활지원실, 6개동 공통)

I 교육지원과 (8건)

- 1) 과밀·과대학급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니, 과대학급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기 바라며, 시립중학교 설립이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설립절차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바람. 아울러 기존 추진되었던 “가칭” 갈현중학교의 재설립 추진도 우리시 학교의 과밀, 과대학급 현실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 협의하기 바람.
- 2)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부지 내 신설예정인 초,중학교는 입주민에 한정하기보다 과천시 전체의 틀에서 학교규모나 위치 등을 판단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현재 계획된 중학교 위치는 교통밀집지역이어서 부적절해 보이므로 학교위치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기 바람.
- 3) 관내교사 교과연구 동아리모임이 예년보다 잘 운영되고 있음.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교사뿐 아니라 타 지역으로 진출 간 교사도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4) 과천아카데미 강의내용이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으나 요즘은 관심이 많은 인문학분야의 수준높은 강의를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5) 청소년육성관련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실업고, 홈스쿨링, 탈학교 청소년 등 다양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교육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에 학부모와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바람.
- 6) 과천예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절교육이 문화원사업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되니 공공건물의 효율적 활용차원에서 예원을 문화원으로 이전하고 예원건물은 직장보육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기 바람. (총무과, 문화체육과와 협의)
- 7) 학교의 하드웨어적인 교육운영과 시설유지관리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우리시는 창의적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 8) 원어민교사 대체수단으로 구리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원어민 화상교육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I 민원봉사과 (4건)

- 1) 시정모니터 등 시민제보 활동을 활성화시켜 시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2) 관계법령, 관계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하니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를 활성화 시키기 바람.
- 3) 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관련,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 현장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속하고 책임있는 One-Stop 민원처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또한 유기한 민원을 포함한 다양한 민원처리에 있어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책임성 있는 민원처리에 노력하기 바람.
- 4) 시장과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실적이 부진하니 특정일을 지정, 시민 누구나 제한없이 자유스러운 시장과의 Open Meeting의 날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 바람.

I 문화체육과 (7건)

- 1) 추사박물관 준공이후 운영비가 당초에 보고했던 것보다 훨씬 증가한 매년 15억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사전예측이 미흡한 결과로 보임. 향후 추사박물관과 같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예상될 시에는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운영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2)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현대미술관, 국립과학관, 경마장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과천 시내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예시: "과천축제"를 특성화시켜 관광객 유치 기회로 전환 추진)
- 3) 경마공원 수요극장 영화 상영과 관련, 경마공원이 시 외곽에 있어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시민의견과 예산낭비라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으니 존속여부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4) 과천문화원 향토사료실이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용자 접근이 어렵다는 시민의견이 있으니 향후 개관·운영될 추사박물관의 전시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적극 검토해 보기 바람.
- 5) 민간이전경비의 일몰제 대상사업들이 대부분 문화체육과 소관사항들이 많음. 3년이상 지원된 민간이전경비 사업선정시 반드시 일몰제가 적용되도록 하기 바람. 부득이 미 적용시에는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여 예산편성시 심의 받도록 하기 바람.
- 6) 민간이전경비 문화행사지원 사업비중 도록 및 책자발간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니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7) 여성기에경진대회에 출전한 "너울네" 및 "아버지합창단" 등 실력이 뛰어난 자생문화동아리 등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기 바람.

I 사회복지과 (5건)

- 1) 엄마랑아이랑 시간제 보육시설 이용율이 저조하니 특화된 프로그램 개설운영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원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존속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2) 최근 무상보육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국도비 미확보로 인한 시비 재정부담으로 무상보육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니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0~2세 유아 무상보육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방안과 형평성 차원에서 가정보육가구에 대한 보육료지원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3)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 근무기간별 장기근속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방안을 타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관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4) 각종 공공건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법적 의무화되어 있음. 공공건물은 물론 관내 도로 등도 이용자 현실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불편을 느끼지 못하도록 시설개선에 더욱 더 노력하기 바람.
(건설과와 협의)
- 5) 장애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관내 교육기관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바람.

I 회계과 (3건)

- 1) 중앙동, 문원동 주민센터 이전 후 기존정사 활용방안을 민간위탁 등을 포함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민에게 유익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입주 배치계획이 나오면 의회와도 사전에 협의하여 주기 바람.
- 2) 고효율 에너지 절감계획 수립시 회계과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현재를 기준으로 목표치와 대책을 설정하고 간결한 에너지 용어정리와 함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람.
- 3) 시재산관리에 있어 용역물건현황 파악 등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제출한 자료 중 여성비전센터 임차종료일이 부정확하게 기재되었으니 정확한 내용을 파악 관리하기 바람.



I 세무과 (3건)

- 1) 세무과는 건축재정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시 대형 도시개발사업 3건에 대한 가상적 세수변화추이 예측을 정확히 분석하기 바람. 또한 레저세 변화에 대체할 세원 발굴, 세수증대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 2) 우정병원 활용에 대해 상황점검 및 해결방안을 관련 부서와 함께 찾아보기 바람. 경기도립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니 경기도, 도의원, 국회의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기 바람.
- 3) 채납액에 대하여는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특히 관내 대포차로 추정되는 80여대의 차량에 대하여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범칙에 이용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기 바람.

Ⅰ 산업경제과 (5건)

- 1) 상가활성화 관련, 청사가 이전해 가고 리모델링 기간이 길어질 경우 상가공동화가 심히 우려되니 리모델링 기간단축, 청사구내식당 잠정폐쇄 등 다양한 상가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각 부서마다 역할이 다양하니 T/F팀을 구성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3단지 상가의 활성화방안도 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하기 바람.
- 2) 에너지기본계획 세부실행계획 실천과 관련, 간결한 수치와 정확한 데이터, 단위 등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표시하여 현행대비 목표치를 설정하여 관리하기 바람.
- 3) 관악산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잘 마무리 하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전국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4)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최근 과천시 재정형편을 감안, 현 시점에서 공원조성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여 추진여부를 빠른기간 내 결정하기 바람.
- 5) 농기계 수리일이 금요일 하루로 정해져 있어 불시에 농기계 고장시 수리 불가로 불편하니 이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기 바람.



Ⅰ 환경위생과 (4건)

- 1) 환경 친화적인 전기자전거를 업무용으로 보급하여 직원 출장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위생과에서 종합적으로 마련해 보기 바람. (총무과, 회계과와 협의)
- 2)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관련, 기술적 신뢰성, 친환경성, 경제성 등 평가표를 만드는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여러 업체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과천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공모”를 추진하여 음식물처리와 감량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 비닐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 3) 자원정화센터 내에 재활용센터가 있으나 재활용 활성화 취지에 맞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불친절하다는 시민의견이 많으니 시정이 필요함. 아울러 재활용센터에 대한 사회적기업 운영제안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재활용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4)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관련, 총량제로 인하여 우리시의 대형개발사업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오염배출량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기 바람.

Ⅰ 정보통신과 (4건)

- 1)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시 방대한 행정정보공유, 보편적 접근권 보장, 문제해결 지향적 쌍방향 소통 등 이 세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하고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고, 정보공개센터의 자문을 통하여 민원을 새로운 환경에서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 컨설팅 마무리시점에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기 바람.
- 2)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CCTV설치운영자문위원회,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의 구성과 참여를 높여나가기 바람.
- 3) CCTV설치와 관련, 주민요청이 있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학교건물외곽 취약지역과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곳 등을 균형있게 설치하여 관리하기 바람.
- 4)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인프라구축 용역사업과 도시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사업비 절감과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Ⅰ 교통과 (9건)

- 1)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도시개발사업이 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 완료시기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 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신설과 관련, 과천시민의 피해 저감방안과 예방에 노력해 주기 바라며,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서울시가 사업을 2년 연기하였으니 우리시 협의도 지연하기 바람.
- 3) 주암동지역 자동차 경정비업소에서 발생하는 소음, 폐유발생, 불법용도변경 등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으니 정기 또는 수시로 건축과, 환경위생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기 바라며, 불법으로 튜닝, 도색, 구조변경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기 바람.
- 4) GB해제지역 부설주차장 피로티를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하여 경정비업소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으니 건축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시정 조치하기 바라며, 불법사항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5) 1번 마을버스 정류장을 중앙고 학생들의 통학안정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수자원공사 앞이나 12단지 앞으로 옮길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6) 시영버스, 마을버스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 각 시설별 셔틀버스 운영노선을 이용자 편의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 7) 공용자전거 무료대여실적 및 이용률이 저조하니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통장회의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8) 우체국앞 사거리 신호대기 시간이 청사앞 사거리 등 유사 다른 지역보다 길게는 2분 짧게는 50초 정도 더 많이 소요되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불편한 것으로 판단되니 현장을 재확인하여 신호체계 개선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 9)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 등을 통해 통과도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차선의 축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Ⅰ 도시과 (8건)

- 1) 지식정보타운내 보금자리주택지구, 단독주택지구, 상업지구, 산업용지지구 등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설배치기준과 배치근거, 입지이유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시하여 의회와 협의하여 주기 바람.
- 2) 지식정보타운 제비울교차로 교통처리계획 관련, 안양 관양지구 진입로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람.
- 3) 지식정보타운사업 지구 내 지하철 역사건립, 당초 임대주택 비율 유지, 산업기반용지 확보 등은 본 사업의 선결 문제이므로 반드시 실현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 4) 강남도시 순환고속도로와 관련, 남태령IC와 선암로 접속구간 교통처리하는 향후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과천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여 협의하여 주기 바람.
- 5)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관련, 제출한 분석 자료를 보면 재무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이자지급 등 전반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많으니 사업성을 세심히 살펴보고 진행추이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주기 바람.
- 6)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기능 활성화 방안 용역 관련, 주민편의성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용역 완료전에 의회와 협의하기 바람.
- 7)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수요분석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 결과물을 제출해 주기 바람, 진행추이를 수시로 의회와 협의하여 주기 바람.
- 8) 문원2단지 정비구역 지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람.



Ⅰ 건축과(6건)

- 1)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관련, 단지 설계시 단지와 단지간 연결 보행통로 확보, 단지간 건축물 배치 등을 조화롭게 하여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시와 해당 주민, 그리고 설계자와 함께 공유하기 바람, 아파트와 도시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기존 양호한 수목을 반드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 역할을 수행 해주기 바람.
- 2) 재건축과 관련하여 특별건축구역지정 및 MP/MA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의회와 즉시 협의바람.
- 3) 과천시 상가 간판을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한다면 상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상가간판정비를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 4) 불법 토지형질변경 관련, 주암동 고물상 불법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원상복구가 되도록 조치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5) 그동안 민원이 야기되었던 뒷골 도로를 가로막는 철문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철거하고, 또한 GB지역내 허가 건축된 종묘배양시설이 당초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기 바람.
- 6) GB 해제지역내 허가된 주택의 부설주차장 피로티에서 자동차 경정비, 도색, 튜닝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으니 교통과,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Ⅰ 건설과 (9건)

- 1) 과천시는 자전거도로가 대체로 잘 조성되어 있으나, 일부구간에서 단절된 부분이 있으니 정비하여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중앙공원에서 양재천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비하기 바람.
- 2) 보도 차량진입 방지용 블라드가 지역별, 시설별로 다양하고 크기와 색상이 다르므로 도시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관련 실과와 협의 통일성을 가지고 보행불편을 개선하기 바람.
- 3) 관내 횡단보도 및 중심상가지역 보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중 일부는 방향수정이 필요하며, 보도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블라드로 인해 장애인 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 현장을 점검하여 개선하기 바람.
- 4)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의한 보행환경개선 및 자전거도로 정비는 의회와 협의, 년차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중앙로 보행동선 단절부분 개선은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 5) 선바위역 주변 일대 도로의 횡구배에 의한 배수기능 미비점을 개선하고 물사랑길 “도자기와 나무랑” 앞 도로가 집중호우시 배수불량으로 침수 및 사고 위험이 있으니 현장을 점검하여 관계부서와 함께 우기전 신속히 조치하기 바람.
- 6) 막계동 카메라박물관 옆 진입도로 개설은 수년전부터 계속된 민원사항이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니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해결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관장간 협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7) 현재 공사중인 추사박물관, 가족여성프라자, 동 주민센터 2곳 등 공공건물은 에너지 절감 시설을 반영하여 향후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도록 하고, 또한 철저한 시공으로 누수 등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8) 과천중학교 후문 관악산길에 학생들이 하교시 자전거로 역주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안전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으니, 시간대별 통행방법 변경 등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9) 문화원, 경기소리 전수관, 장애인복지관, 문원도서관, 문원1단지 공용주차장 및 시립어린이집 등 신축공공건물의 누수 등 하자를 즉시 보수 완료하여 올 해 태풍과 호우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Ⅰ 생활안전지원과 (6건)

- 1) 안전도시 관련 사업으로 인해 재난안전과 본연의 업무인 재난, 재해 업무에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됨. 또한 안전도시 관련 사업 중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 이런 점을 염두하여 2013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기 바라며, 년차적 세부사업들이 안전도시의 본래 목표에 부합되게 잘 추진하기 바람.
- 2) 안전도시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도시사업에 참여할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기 바람.
- 3) 관내 하천 내에 큰 나무가 있어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빠른 시일 내 제거하기 바라며, 하천에 가시덩굴 등 외래수종을 제거하는데 관내 사회단체가 동참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 4) 진행중인 하천공사 관련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다가오는 태풍과 집중 호우시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산업경제과와 함께 경사지 관리, 측구공사가 말끔히 마무리 되도록 하기 바람.
- 5) 부대천, 삼거리천 및 주변 구거의 단면부족으로 배수불량이 우려되니 단면이 부족하지 않은지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여 새로운 배수대책을 수립, 개선하기 바람. (대형가스관 보호공 제거 등 포함)
- 6) 뒷골 사방댐 우측 임야부 배수단면이 부족한 것 같으니 단면 확대를 검토하기 바라며, 설치한 링네트 관리를 철저히 하여 호우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람.



Ⅰ 보건소 (2건)

- 1) 지역사회건강조사 관련, 기초조사를 근거로 시민의 건강여건을 분석하여 관리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임. 건강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질병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축적하기 바람.
- 2) 심폐소생 응급처리 교육 관련, 관내 기관·학교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기 바람.

Ⅰ 정보과학도서관 (3건)

- 1) 청소년 과학리더 양성 관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고 있음. 추가로 중·고생에 대한 소수,정예의 특화된 기초과학리더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중·고생에 대한 심화반 개설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2) 대출권수를 현행 5권에서 더 늘리고, 대출기간도 연장하기 바람.
- 3) 사서직공무원을 충원하고 도서관운영에서 사서의 역할을 높이기 바람.

Ⅰ 상수도사업소 (2건)

- 1) 공동주택 지하수 "비소" 검출 관련, 현재 1년에 한번씩 46개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면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기준을 초과한 음용수 부적합 지하수 및 약수터에 대하여는 월 1회로 확대,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주기 바람.
- 2) 정수처리 약품의 적정량 사용으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Ⅰ 환경사업소 (1건)

- 1) 하수처리 각종 약품구입 및 수불관련, 약품사용이 작년에 비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줄어든 경우가 있으니 증감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깨끗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Ⅰ 청소년수련관 (2건)

- 1) 작년도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매우 활발히 운영되어 여성가족부 최우수상과 대상을 수상한 바 있음. 2012. 8. 31 한시기구가 종료되어 교육지원과와 통합하더라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기 바람.
- 2) 영어체험장 위탁기간 만료후 다문화체험시설로의 전환을 검토하기 바람.

I 6개동 주민센터 (5건)

- 1) 각 동의 도·농 교류활성화사업 추진관련, 사업 취지에 맞도록 알차게 추진하기 바람. (공통)
- 2) 각 동 통장들이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각 동장과 통장간, 각 단지별·지역별 통장 상호간에 교류를 보다 더 활성화하여 원활한 동정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공통)
- 3) 주민자치위원회 기존 위원들의 연임율이 너무 높으므로 새로운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공통)
- 4) 문원동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다소 부진한듯하니 동청사 이전에 맞추어 프로그램운영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아울러 탁구장 설치민원이 있으니 탁구장 설치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문원동)
- 5)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관련, 심사위원 평가항목중 주관적 평가비중 40%의 과다한 배점과 연령에 대한 배점이 적절치 못한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공개모집과 평가방법 적용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기 바람.

I 시설관리공단 (4건)

- 1) 중앙공원 시설 및 식물관리에 대한 민원이 많으니 산책로와 식물보호 구간을 구분하는 등 적절한 공원관리가 되도록 하기 바람, 농약없는 공원 만들기는 환경적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되니 2013년 예산반영 등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2) 문원·관문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관리 관련, 시설노후로 인하여 부상위험과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니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람.
- 3) 시설관리공단 내 시설임대 관련, 임대계약시 영리목적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하는 방법, 사회적기업 유치방안,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방안 등을 함께 찾아보기 바람, 의회와도 수시로 협의하여 주기 바람.
- 4) 공원약제 살포시 작업자와 보행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바람.

II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2011년도 하반기부터 2012년도 상반기까지의 시정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 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시민의 기대에 미흡한 성과로 나타남으로써 개선이 필요합니다.
-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추진이 요망됩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성과가 좋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정책제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을 바라며,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나날이 발전하는 과천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제6대 과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 의장 : 황순식 부의장 : 이홍천

과천시의회는 지난 6월 26일 제 18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후반기 과천시의회 의장단을 선출하였다.
의장으로는 황순식의원(나선거구)
부의장으로는 이홍천의원(나선거구)이 각각 선출되었다.



議 시정질문 및 답변내용

1.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 이홍천의원
2. 일자리 만들기과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 박정원의원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이홍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순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과천미래 발전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정에 전념하시는 여인국 시장님과 500여 명의 과천시청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대해 7만 과천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립니다.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프로젝트 사업 중 과천 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과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과천 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과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은 10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업은 과천시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 내용을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은 갑자기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둔갑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인국 시장님은 바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과천의 미래의 명문이 달린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민들에게도 선거공약을 통해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LH가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이 사업을 돈 벌이용으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가 많이 늘어났고, 대중교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역 설치 계획을 백지화 시켰습니다. LH가 지하철역을 백지화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지하철역을 백지화 시키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를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지하철역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LH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내 약 9만여 평의 산업

단지를 과천시가 분양한 댓가로 전체 토지의 절반인 2,500억원의 투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는 전체 토지 금액의 1/10 인 55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과천시의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550억원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는 LH와 협의과정에서 절대 투자금이 550억원이 넘지 않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가 많은 예산을 LH에 선투자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것은 세수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분양시 과천시 세수입은 어느 정도 인지 말씀해 주시고, 분양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분양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경인 고속도로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내 토지 소유주 중에는 일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일부는 제 2경인 연결 고속도로 부지로 나뉘져 협의택지를 받지 못하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난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훼종합센터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는 화훼종합센터에 경매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화훼농민들 역시 경매 기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경매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2년 정도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경매기능을 배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 등 여러 기관에 경매사업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은 이 자리에서 화훼종합센터 특수법인에 과천시의 어떠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업방식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모든 투자와 책임은 사업자인 삼성에서 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지요.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해 30%의 지분을 맡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전체 분양 규모 중 30% 책임지는 대신 과천시

에서 금리와 이윤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천시가 직, 간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과천시가 당초 계획을 바꿔 시가 30%의 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과천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등 여러가지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과천시는 당초의 계획대로 경매기능을 도입하고, 삼성이 모두 책임을 지는 특수법인 체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매기능을 배제하고, 재무 투자자를 선정해서 30%의 지분의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명백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 때 도시과장이 9월까지 삼성과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이 사업을 폐기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집행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생명력은 정책의 신뢰입니다. 화훼종합센터에 경매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경매기능을 배제하겠다는 집행부의 해명, SPC 특수법인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천시는 아무런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설명해 놓고 이제 와서 30%의 지분을 책임지겠다는 과천시, 시장님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시민들이 과천시의 행정에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A
여인국 시장

시장 여인국입니다. 시정발전과 2011년 세입세출 결산 및 감사, 조례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황순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홍천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홍천 의원님께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추진상황, 지하철역사 문제, 지식기반산업용지 인수에 따른 재정투입 및 분양방법, 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 토지주 민원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과천시는 당초의 계획대로 경매

기능을 도입하고, 삼성이 모두 책임을 지는 특수법인 체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매기능을 배제하고, 재무적 투자자를 선정, 30%의 지분의 분양책임 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추진경위와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공동으로 추진해 왔던 LH가 자사의 자금사정으로 2011년 1월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방식이 변경되었지만, 당초 목적인 자족기능 확충에 필요한 지식기반 산업용지 약 9만평을 확보하였고, 기 계획된 도시기반시설 등을 반영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지구지정에 이어, 금년 6월 30일에 국토해양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LH가 한 상황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관련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 지구계획 승인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지하철 역사가 반영되지 못한 이유와 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는 관련법에 따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반영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당성 검토 결과 안타깝게도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타당성 검토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에 과천시와 LH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주요 이유는 공사비가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하철 노반의 경사도가 역사 설치기준인 8퍼밀을 훨씬 상회하는 15퍼밀로 확인되었습니다. 역사를 설치기 위해서는 철도 노반을 개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노반 개량비가 추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역사 설치비가 통상의 역사 건설비의 2배가 넘는 2,400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지하철 역사는 직간접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 검토 기준에는 역사 이용수요와 투입비만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역사가 가져다 주는 간접효과는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하철 역사의 중요성을 감안 역사 예정 부지를 확보해 놓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하철 역사 신설은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지식기반산업용지 인수 관련 재정투입 및 용지공급 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LH는 본 사업을 타 지구보다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과천시가 지식기반산업용지 인수 추정 금액의 50%, 약 2,500억원을 선투자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LH의 요구사항과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인수 총 금액의 10%정도인 550억원을 지구계획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되, 용지인수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지난 6. 29일 최종 합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용지인수 대금 잔액은 사업 준공시까지인 2018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시 재정 운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용지인수대금 잔액은 재정을 통해 조달하지 않고, 기업유치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기반 산업용지 분양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만, 첨단지식산업 기반의 연구기능 등 지식정보타운 컨셉을 고려하고,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유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최적 방안을 도출하고 있으므로,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설명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기반 산업용지 세 수입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역시 현재 연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05년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면, 지식정보타운 전체의 세수입은 시세 236억원, 도세 210억원 등 연간 최대 446억원으로 검토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58,000명의 고용증가와 약 4,300억원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와 지식정보타운 양쪽 사업지구 편입됨으로써 현행 보상법상 협의택지 간접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인 국토해양부, 양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협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과천시가 당초의 계획대로 경매기능을 도입하고, 삼성이 모

두 책임을 지는 특수법인 체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매기능을 배제하고, 재무 투자자를 선정, 30%의 지분의 분양책임 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은 화훼산업 선진화 및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과 국가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계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천시는 양재화훼공판장의 과천화훼종합센터로의 이전을 통한 경매시설 도입을 위해 오랜 기간 농림수산식품부 및 aT센터와 협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 및 aT센터가 양재화훼공판장의 이전비용의 2천억원을 과천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시재정 및 사업성 측면에서 경매시설을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협의결과, 양재화훼공판장 이전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직권으로 aT센터의 수요를 제외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매시설은 대규모 시설비용이 수반되는 시설로서 과천시의 재정 부담에 의한 시설유지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유로 과천시는 실수요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지속적으로 경매시설 유지를 추진 중입니다.

과천시는 PF(타인자본) 조달을 위해 필요한 신용보강을 민간사업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화훼단지 등 요청에 의해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화훼농민 등을 위한 임대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매우 높은 분양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화훼인을 위한 임대정책은 실수요자의 입주를 유도함으로써 시장 활성화 및 부동산투기방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임대사업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은 분화점포, 철화점포 등 화훼점포의 최대 30%를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전체시설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16.6%에 해당됩니다. 현재 임대규모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초 분양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천시는 임대사업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 부동산펀드 등을 검토 중이나, 초기 분양 이후 임대사업 규모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조달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삼성물산과 진행 중인 사업협약의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사업협약의 최대 쟁점사항은 PF(타인자본)조달에 필요한 신용보강의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융사에 제공하는 신용보강은 삼성물산이 100% 부담해야 한다는 과천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삼성물산 또한, 분양성 검증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삼성물산은 7월초까지 전체분양시

설의 매입확약을 100% 징구하였으며, 과천시가 공공시설 및 임대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확정적 분양성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 사업협약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그에 따라 삼성물산은 과천시가 계획한 공공시설 및 임대사업에 대해 매입확약을 확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천시가 매입확약을 삼성물산에게 확인해 줄 경우에는 금융사에 제공하는 PF(타인자본)조달에 필요한 신용보강은 100% 삼성물산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만들기과 직장 보육시설에 대하여...

박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과천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슬로건은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입니다. 과천에서 14년째 살고 있는 저는 이 말이 아주 익숙하고 이 살기좋은 과천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도시로 생각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토지나 주택 소유자들도 사업진행에 예민한 상태이고 오래 거주하던 세입자들도 재건축이 시작되면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고 상가들은 청사 이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발 경제위기와 가계부채 증가로 온 나라의 경제가 침체상태이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경쟁에 쫓겨 불안과 우울로 국민의 행복지수는 마냥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국민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그 나라를 평가했지만 이제는 국민의 행복도를 봅니다.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과천시민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시민의 행복에 기여할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과천의 현안이 건설, 개발 사업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행정, 교육, 복지, 문화예술 등 우리 삶의 내용적인 면과 관련된 사항들도 시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과 사회 네트워크가 안정된 지역에서 사느냐가 행복도의 중

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과천은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적당한 일거리를 갖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향 같은 마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업 등으로 외관이 화려하고 거대한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속한 도시변화 속에서 오래도록 과천 시민임에 자부심을 갖고 살던 분들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누구에게도 매력적이지 못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시가 처한 상황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작년과 올해 본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정책연구모임에서도 과천여성의 70% 이상이 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청년 노

년층을 불문하고 일자리 문제는 정말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도 일이 필요하지만 일에서 살아가는 보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정부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이 등장하였습니다. 과천에는 2010년 '과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시작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은 없고, 예비 사회적기업만 두 곳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사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 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마을기업으로 2개의 업체가 선정되어 지원받은 바 있고 올해도 다른 이름으로 2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을 도에서 선정하는 것과 달리 마을기업은 전적으로 시에서 선정하므로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우리 시가 규모가 작고 인구가 적어서 이러한 사업 지원자가 적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요가 부족하기 보다는 설립과정이 어려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과천시의회 여성정책연구모임에서 여성 사회적기업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 5명 이상의 회원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므로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천시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등 단순 일자

리를 배분하는데 치중해왔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리고 자신의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마땅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과천은 신도시 형성초기부터 품앗이, 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 어린이 도서관, 저소득층 방과후 교실 운영 등 다양한 시민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이러한 토양이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시는 이러한 지역 내 자원으로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사업 발굴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기업과의 가교 역할을 하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유사사업에 대한 원스톱 통합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경제 조직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2011년부터 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천에도 사회적기업(경제)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액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주민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민들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만들기과 더불어 과천시 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인 교육시설에 관해서 제안 드립니다. 교육문제는 충분한 대책이 없을 때 저출산을 유발할 뿐 아니라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를 위해 일하는 과천시 직원들을 위해 과천시청에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직원들이 충분히 배려 받고 행복해야 우리 시민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의 직원수도 상시 근로자수 기준으로 500명을 넘고 여성 직원의 비율이 40%가량이며 인근 시군에도 대체로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넘거나 여성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보육시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직장보육시설을 검토한 바 있다고 들었으나 이런저런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나날이 늘어가는 여성 직원들이 아이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체되어 있는 과천 국공립 보육시설의 대기자들에게도 숨통을 틔여주는 역할

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안드리자면 그동안 시장님의 배려로 시청 뒤 시장관사를 사용해온 예원을 주민이용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문화원 시간제 보육시설 공간으로 이전하고 관사건물을 증개축하여 직장보육시설로 활용하는 안입니다. 문화원은 예절과 문화관련 교육을 하기에 적당한 시설이며 세미나실과 강당, 잔디마당 등이 갖추어져 있어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과천시,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천시장 여인국입니다. 시정발전과 2011년 세입세출 결산 및 감사, 조례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황 순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박정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원 의원님께서 일자리만 들기와 관련,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사업 발굴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과,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일자리 발굴에 대해 질문하셨으며,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 시장 관사로 사용해온 예원을 주민이용이 저조한 문화원 내 시간제 보육시설 공간으로 이전하고, 관사건물을 증개축하여 직장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사업 발굴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2011년 9월 과천시 사회적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기반을 이미 구축하였습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0년과 2011년에 각 1개씩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총 2개 기업을 육성중이며, 2015년까지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총 5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사업으로, 과천여성비전센터의 경력 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미술품 박물관 등 해설사 양성과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지역 내 자원으로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사업발굴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시는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지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사회적사업 단체를 중심으로 적극 홍보 및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단체들이 소규모 창업과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지원사항에 대하여 컨설팅과 사회적기업 관련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침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정부(도)로부터 인증 및 지정받은 사회적기업이 5개 기업 이상인 시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8개 시에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 6개 시는 인구 40만 명 이상의 도시이며 나머지 2개 시는 인구 약 20만 명 이상의 도시들입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인구가 약 7만여 명인 소도시로서, 현재 2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과천일자리센터에서는 이러한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일자리 아카데미 개최, 교육 개설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홍보하고 있고,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건립의 기준이 인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과천일자리센터에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수요가 증가하고 현재 일자리센터에서 추진해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일자리발굴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희망하는 단체나 공동체의 기업 육성과 경영지원을 위해, 대상이나 절차 방법, 신규진입 등에 대하여 홍보는 물론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을 희망하는 단체나 공동체에 대하여는 컨설팅을 통하여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일반 소규모 창업희망자에 대하여 소자본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자금 융자이자 차액 보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

상공인 육성기금 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하여 행·재정적 지원 등 지역 일자리창출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관사로 사용해온 예원을 주민이용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문화원 내 시간제 보육시설 공간으로 이전하고 관사건물을 증개축하여 직장보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현 과천예원은 지난 2002년 제1차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장 관사를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한 사항으로, 2003년 4월 3일 새롭게 개관하여, 그간 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예문화 공간으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우수 예절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03년 당시 11개 과정으로 시작한 과천예원 사업은 현재 15개 프로그램 21개 과정으로 늘어났고 참여 인원도 연인원 4,500여 명에서 2011년말 기준 7,100여 명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과천예원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들 또한 과정 전반에 걸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원 엄마랑아이랑은 문화원 건립 계획 수립 시 문화원 및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들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무상보육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아동 증가 및 문원도서관 엄마랑아이랑 추가 개소로 이용아동이 분산되면서, 일일 평균 5명으로 이용률이 다소 낮은 상황이나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가정에서 접하지 못하는 놀이 활동의 기회를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등을 검토하여 가정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유익한 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원과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님들 편의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매우 중요하고 직원들과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생각에는 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중앙동 단독주택 부지 매입과 구세군어린이집 위탁 운영 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으로 직장보육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직장시설을 단독으로 갖추 수 없는 경우에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장 관사는 주민에게 돌려드리겠

다고 시장이 선거시 공약한 사항으로, 주민과의 약속이행 차원에서 현과천예원을 직장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원대표들로부터도 시장관사를 직장보육시설로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받았습시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제가 선거시에 공약한 사항이라 하

더라도 그러한 공약한 사항이 타당성이 없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이용이 저조하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는 예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제가 만나는 시민들께서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좋은 장소에서 운영해 주는 것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사를 주민과의 약

속이행 차원에서 직장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제 입장으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직장보육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직원 의견수렴을 통하여 적정부지 선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및 답변내용은, 지면상 과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7~18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 제177회 임시회 (2012. 1. 30 ~ 2. 6)

- 2012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 주요 건의사항 : 68건
- 의결사항(원안가결 : 5, 수정가결 : 2, 보류 : 1)

연번	의안번호	안 건 명	
1	2012-1	과천시 생태도시 촉지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2	2012-2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례안	수정가결
3	2012-3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2012-4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보류

연번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5	2012-5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6	2012-6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012-7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8	2012-8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제178회 임시회 (2012. 2. 23)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제179회 임시회 (2012. 3. 15 ~ 3. 16)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
- 과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 제180회 임시회 (2012. 5. 23 ~ 5. 25)

- 예산 및 조례심사 10건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원안 및 수정가결



• 제181회 임시회 (2012. 6. 26)

- 제6대 과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 과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과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부결



• 제183회 임시회 (2012. 8. 13)

- 과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과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원안가결

제 39 호는 다음 회의가 끝나는대로 발간할 예정입니다.